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7호 【루게 제24395호】 주제102(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적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혁명적단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전백승을 펼쳐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유일사상체계, 유일혁명도체계의 확고부동성, 바로 여기에 우리 일심단결의 공고성이 있고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성이 있다.

지난 12월 8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장성택 일당의 반당반혁명종파행위를 날발이 폭로하고 그 일당을 단호히 숙청하였다.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단결을 좁히고 당의 유일적령도에 도전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기지였다. 장성택 일당의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에서 가장 위험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이며 혁명인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거세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던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는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게 혁명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었다.

조선로동당은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에 기초한 사상적순결성, 조직적집합성, 행동의 통일성이다. 이번에 현대판 종파인 장성택 일당이 적발수첩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은 천배로 강화되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로 가로막아주는 이 세상이 없다.

1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물려주신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세기를 이어 역세여지는 백승의 무기가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당이나 하나의 사상이지로 굳게 뭉치고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본성이며 전통적인 혁명방식입니다.》**

혁명은 곧 단결이며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끄러나가는 과정에 첫째도 둘째도 놓치지 않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혁명의 존엄한 시기에, 령도의 계승의 시기에 머리를 쳐드는 종파분자들을 적발수첩하는것이다. 종파를 제거하여 당이 강화되고 일심단결이 공고해지며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는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종파란 뭘다른것이 아니다. 수령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옹호관철하지 않고 그와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기리끼리 겉과하여 겹치기 행위를 하고 보수를 쌓게 되면 당에 로물것으로 도전해나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종파이다.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고 당과 혁명대오를 분열파괴하려고 닦구는 종파분자들은 력사의 반동이고 혁명의 원수이며 인민의 적이다.

우리 당은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이며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제대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필승불패의 당이다.

우리 당력사에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와 1956년 8월전원회의, 1958년 3월에는 조선로동당 제1차대포자회를 비롯한 당의 통일단결강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들이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국의 날갈 첩첩산중에 당을 세울수 있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시었으며 전후에는 반당적, 반국가적 음모를 꾸미던 종파연합집단을 청산하시고 종파오물을 완전히 쓸어버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김일성주의의 길로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시였으며 신기의 길에서 일심단결의 위력을 비상히 높여주시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순간의 담보나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확고한 신조였다.

오늘 우리 당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유일적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루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한 천만군민의 사상의지적단결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도 우리 당은 신념이 떨떨한자들, 당과 다른 길을 걷는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짓뭉개버리며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박하고 그 위력으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신념의 표시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에 대한 리없이 맑고 깨끗한 충실성의 진전에 기초하고 있는 혁명적단결이다.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통일단결의 기본법이다.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따라 맹목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단합은 결코 오래갈수 없다. 수령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어모시는 깨끗한 충실성이야말로 당을 받드는 역연정신적기둥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 충성과 의리의 세계에서 천배로 강화되어왔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총대로 옹위하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제일선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우리 혁명의 전세대들의 생명선이었고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의 혁명적단결, 동지적단결의 초석이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귀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 당력사를 가장 숭고한 일심단결의 서사시로 빛내신 근본원천이다. 지금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어버이수령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과 마음고생을 많이 겪어오신분이라고, 수령님께서서는 종파분배문에 머리가 세웠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수령님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흐트러뜨리려는 사소한 반당반혁명적행위에 대하여서는 후호도 용납하지 않으신분이 우리 장군님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허물수 없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고 획책한 현대판종파분자들에게 대한 치솟는 분노와 오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고 있는것은 억척만민 죽더라도 경애하는 원수님들을 받들어나가는것은 충정의 일관된 심,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 불변의 신념이다. 이런 군대와 인민의 성세, 방패를 이룬 당과 혁명대오가 있기에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에 기초하고있는 불패의 단결이다. 혁명적조직성과 규율성은 당의 생명이다.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율성이 확립되어야 당안에 기여든 온갖 불순이색분자들을 제때에 적발수첩할수 있고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바뀌어오지 않는 불의와 허위, 배신과 변절, 반역의 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이다.

2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혁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철통같이 다져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담근실업적들을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우리 당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전수혁명적 전통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위력으로 이 땅에서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팔권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조선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 거창한 비약과 변혁의 시대에이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념이 빛나게 실현되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현시기가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와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며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천배로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2013년 12월 8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한중도 못되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쓸어

버리고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계기로 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더욱 높이 떨치기 위한 백승의 진로가 밝혀지고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천결단결의 성세, 방패를 이루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장엄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불패의 것으로 다져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은 선군혁명적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전당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통일단결을 천배로 강화해나가고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로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령도체계이다.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불패의 통일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질수 있고 전당의 사상지 및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언제나 당의 령도체계를 허물고 더러운 종파적악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획책한다. 이런자들이 항상 노리고있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거역하고 음으로 양으로 령도권을 찬탈하기 위한 기회뿐이다. 이번에 우리 당이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깨물어보고 단호히 숙청한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사면으로 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원수님의 로선과 방침을 즉시에 접수하여 결사관철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요구이다. 오늘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되는 속도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정책에 대한 옳바른 판결과 입장을 가지고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가 되어 뛰고 도 뛰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중앙으로부터 하부단계에 이르기까지 당의 사상과 의도가 즉시에 전달되고 그 어떤 문체이든지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는 우리의 당선박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이다.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나고 뜻이 새겨진 성스러운 당마크는 인민대중과 혁명적뉴대를 이룬 우리 당의 튼튼한 대적지반, 우리 혁명의 강위력한 일심단결의 상징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마련하시고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백전백승의 보금이다.

조선로동당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불의와 허위, 배신과 변절, 반역의 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에둘어갈 길도 없고 물러갈 지라도 없다. 실사 그 길에 험한 진일이 가로놓이고 지뢰밭이 막아선다고 하여도 우리는 오직 백전백승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만을 받들고 힘차게 세워나갈것이다.

우리 당은 전당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차넘치게 하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군민을 걸어온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을 한몸에 안고 인민사랑의 세력사를 수놓아가고계신다. 조선소년동맹 7차대회와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계주형사정찰에서 온 나라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을 한몸에 안고시고 수령의 기념사건을 찍으신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주시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한평생을 바친 용사들의 삶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들이시이다.

아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주제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보검이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며 원수님의 말씀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며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제대본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최고투쟁목적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념,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이다. 문수물놀이장, 미림숨마구락부, 마시명스키장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장소들을 건설하여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것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으로 인민의 부귀영화를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을 우러러 인민들은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높이 부르고있다. 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고있다.

우리 당은 당세포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고있다. 당의 위력이 당세포의 위력이다. 당세포만 강화하면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못낼일이 없다.

우리 당은 당의 강화발전에서 당세포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진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마련하시어 당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었다. 지금도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서는 저들이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 세도꾼, 판로주의자들이 하도 우리 당이 단호히 쳐야 할 주저는 투쟁대상이라고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준엄한 승성이 울리고있다.

이번에 숙청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직권을 탐용하면서 세도와 판로주의를 부리고 부패하며,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돌아쳤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화면을 돌아안 독초와 같은 세도와 판로주의를 벌초만 할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적원칙이다.

오늘 우리 당의 모든 당세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들고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혁명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모든 당원들을 합다음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 전수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으며 군중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광범한 군중이 우리 당과 혁명의 정으로 굳건히 어이저게 하고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세워한 수령신식, 장군신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이끌어가고있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과 사랑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를 당의 혁명적의 성세를 쌓아가고있는 우리 당세포들이 초석을 이루고있기에 일심단결의 위력이 천배로 강화되고 있는것이다.

우리 당은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일심단결의 력사와 정치를 창조하고 끝없이 빛내여온 위대한 당이며 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펼쳐가는 강철의 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당건설사상이 있고 혁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은 앞으로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갈것이다.

2013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제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전환적계기로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들의 령도에 의하여 더욱 높이 들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을 구현해나가기로 혁명하게

당세포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꾼들이 모든 당조직관원을 지니고 당의 결정적지를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하며 한결같은 결의로 당조직에 보고하고 움직이는 강한 규율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끼친 해독적후과와 최행을 우리 당의 반종파투쟁 력사와 결부하여 잘 알려주어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명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우리 당의 생명이고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주제혁명위업, 사회주의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여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게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야 한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의 웨침이 온 나라를 진감하고있는 속에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특별군사재판은 현대판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에 가득 찬 모략과 비열한 수법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한 피소자 장성택의 죄행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제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시인되었다.

공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판결문의 구절구절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이며 흉악한 정치적야심, 음모가인 장성택의 머리에 내려진 중무와 격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준엄한 철퇴와도 같았다.

피소자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에 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었다.

장성택은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높은 정치적신념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적인 직위에 등용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었다.

장성택은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 이진기보다 더 높은 직위와 더 큰 믿음을 받았다.

장성택이 백두산절세위인들로부터 받아안은 정치적믿음과 은혜는 너무도 분에 넘치는 것이었다.

믿음에는 의리로 보답하고 은혜는 충정으로 갚는것이 인민의 초보적인 도리이다.

그러나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스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안은 하늘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친적사랑을 배신하고 친인공노환 반혁명행위를 감행하였다.

높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야심을 가지고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들의 생존해게실 때에는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동, 양봉을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전당, 전군, 전민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에 양세기를 교묘히 련동의 계승문제를 음모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높은 자기의 교묘한 책동이 통할수 없게 되고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었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군과 열광적인 환호로 뒤편까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설건설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지어냈다.

높은 그때 사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군령도지판과

령군체계가 공고해지면 앞으로 제놈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것이라고 생각하였기때문이라고 자인하였다.

장성택은 그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일찍이,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게 되자 오래전부터 품고있던 정견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책동하기 시작하였다.

장성택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현지지도를 자주 수행하게 된것을 악용하여 제놈이 늘 원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혁명의 수뇌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것을 대내외에 보여주어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꾀하였다.

장성택은 제놈이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놈에게 아무 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타격을 받고 철택, 해임된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세분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끌어들이었다.

장성택은 청년사업부문에 베풀고있던 정견야욕에 매수되어 변절한자들, 배신자들과 한동여러가 되어 우리 나라 청년운동에 엄청난 해독을 끼쳐줄을뿐 아니라 그자리를 당당한 조직에 의하여 적발수첩들이 후에도 그 그나불들을 계속 끌고다니면서 당과 국가의 중요직위에 박아넣었다.

높은 1980년대부터 아첨꾼인 리룡하를 제놈이 다른 직무에 조동될 때마다 끌고 다니었으며 당의 유일적정도를 거부하는 종파적행동을 하여 쫓겨났던 그자를 체계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자리까지 올려 놓아 제놈의 심복들대로 만들어놓았다.

장성택은 당의 유일적정도를 거부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켜 쫓겨났던 측근들과 아첨꾼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몇년사이에 제놈이 있는 부서와 산하단위들에 끌어올리고 전과자, 경력에 문제가 있는자, 불령행위를 가진자들을 체계적으로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는 그우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였다.

높은 부서와 산하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걸어쥐고 성, 중앙기관들에 깊숙이 손을 뻗리려고 책동하였으며 제놈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높은 무엄하게도 대동강타일공장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묘지이영상작품과 현지지도사적비를 모시는 사업을 가로막았을뿐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들 조선인내무군 군부대에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친원외강장에 새겨 부대 치휘부상에 걸고 정중히 모시자는 장병들의 일치한 의견을 묵살하던 끝에 마지못해 그늘진 한쪽구석



에 건립하게 내리먹이는 망동을 부렸다. 장성택이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조직적인 사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거역하는 반당적행위를 감행한것은 제놈을 당에서 결론한 문제도, 당의 방침도 뒤집을수 있는 특수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여 제놈에 대한 극도의 환상과 우상화를 조성시키려는 고의적이고 불순한 기도의 발로였다.

장성택은 제놈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깨끗한 충정과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있는 물자들까지도 중도에서 가로채 심복졸개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제놈의 낮기기를 하는 무엄한짓을 하였다.

장성택이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한 결과 높이 있던 부서와 산하기관들의 아첨분자, 추종분자들은 장성택에 《반동적》이라고 취급하며 어떻게 하나 잘 보이기 위해 당의 지지도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장성택은 부서의 대상기관에 당의 방침보다도 제놈의 말을 더 중시하고 받아들이는 이질적인 사업체제를 세워놓음으로써 심복졸개들과 추종자들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명에 불복하는 반혁명적인 행위를 저지른것이 감행하게 하였다.

최고사령관의 명명에 불복하는것들은 그 누구든지 혁명의 총대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그런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지리가 없다.

장성택은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단계로 내각총리자리에 올라 앉을 개꿈을 꾸면서 제놈이 있던 부서가 내각을 중추경제부문제로 다 걸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한 것에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하였다.

높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세우신 새로운 국가기구에 제놈을 무시하고 내각소속 김일성기념관을 제놈에게 소속시켰으며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급기관을 내

어거나 없애는 문제,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와 재외기구를 조직하는 문제, 생활비적용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에서 맡아하던 일체 기구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손안에 걸어 경제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내각이 경제수령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높은 국가건설감독기구와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해당 성과 합의를 하지 않고 당에 거짓보고를 드리려고 시도하다가 해당 일꾼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작성하신 건설법과 어긋난다는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자 《그러면 건설법을 뜯어고치면 되지 않겠나?》고 망발하였다.

장성택은 직권을 악용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우신 수도건설과 관련한 사업체제를 행들어놓아 면면사이에 건설건제지들을 폐허로 만들면서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수도건설단위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약화시켰으며 중요건설단위들을 심복들에게 넘겨주어 손발이 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평양시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장성택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꾼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역의 도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들을 부추겨 천억원의 우리 돈을 탐욕하면서 엄청난 경제적손실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다.

장성택은 정치적야망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으면서 우리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률적인 독소를 퍼뜨리는데 앞장섰다.

1980년대 광복거리건설때부터 귀금속을 걸어모아는 장성택은 수중에 비밀기관을 만들어놓고는 국가의 법은 안중에도

이 은행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내어 귀금속을 사들임으로써 국가의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는 반국가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장성택은 2009년 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치자료를 들이밀며 권력을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심복졸개들에게 류포시켜 자본주의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돈을 망탕 뿌리면서 부패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장성택이 2009년 한해에만도 제놈의 비밀저장고에서 460여만을 꺼내 랑진한 사실과 외국도박장출입까지 한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높은 얼마나 타락, 변질되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장성택은 정견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날뛰던 나머지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수 있을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리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장성택은 심리과정에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상태와 인민생활이 과격적으로 변하지는않고도 불구하고 정견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령도자로서이다.》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높은 정변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인민군대에 있는 군대간부들을 리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최근에 임명된 군대간부들은 잘 몰라도 이진기 임명된 군대간부들과는 면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에 정변에 동조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내가 있던 부서의 리룡하, 장수길을 비롯한 심복들은 얼마든지 나를 따를것이라고 보았으며 정변에 인민보안기관을 담당할 사람도 나의 측근으로 리용해보려고 하였다.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장성택은 정변을 일으킬 시점과 정변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에 대하여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자마자

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것으로 타산하였다.》고 토설하였다.

장성택은 비열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후 외부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제놈의 추악한 물골을 리용하여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어리석게 망상하였다.

모든 사실은 장성택이 미국과 피외역적파당의 《전략적내내》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분서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고 오래전부터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였은 천하에 들도 없는 만고역적, 매국노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장성택의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인 죄악은 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 심리과정에 그 가증스럽고 추악한 진모가 날뻗어 밝혀지게 되었다.

시대와 력사는 당과 혁명의 원수, 인민의 원수이며 추악한 조국반역자인 장성택의 치명리는 죄상을 영원히 기록하고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뀌어도 변할수도 바뀔수도 없는것이 백두의 혈통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동지의 유일적정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끌어내어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고 100%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것을 확증하였으며 흉악한 정치적야심,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벌의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을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통일단결은 억척불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각계의 반향

석탄산으로 결사옹위의 성새를 쌓겠다

순천지구 청년 단 광련 합 기업 소 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 배짱으로 만났을 해치며 승리에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순천지구 청년 단 광련 합 기업 소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석탄산으로 결사옹위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순천지구 청년 단 광련 합 기업 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명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한 연 합기업소안의 온 탄전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척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동, 양봉을위하며 신념이 떨떨한 자들, 아첨분자들로 당안에 분파를 형성하기 위해 악랄한 행위를 일삼아는 한중도 못되는 장성택일당이 신성한 선군조선의 공기와 물을 들이켜며 사슬을어긋나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가슴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피가 솟구치는것만 같다. 우리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꾼들은

들끓는 광막장에 들어가 탄부들 모두가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들께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석탄산에 박자를 가하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어나가겠다.

2. 8지동청년단광련합기업소에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리숯했다.

지금도 눈앞에는 무더운 여름철 우리 단전에 찾아오시어 일을 잘하라고 고부해주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온다. 그런데 더러운 장성택놈이 눈보라강풍, 삼복불경강풍으로 인민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않게 잘살게 하기 위해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땅을 바치지는 못할정할 앞에서는 간사한 웃음을 짓고 돌아앉아서는 온갖 어중이떠중이들과 판공을 꾸었다니 이 쥐새끼무리의 천인공노할 죄악앞에 사깃불이 노호하고있다.

우리 직동의 탄부들은 분연히 일 떠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석탄중심으로 결사옹위할 천철만첩의 대오가 착암기를 총창마당 틀어잡고 울헤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일념으로 석탄산을 하늘이 치솟게 높

이 쌓아가고있다. 청년청년단광 7개 광장 서병철은 장성택일당의 죄행을 생각할수록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탄부들이 피땀흘려 캐낸 석탄을 비롯하여 인민의 귀중한 재물을 팔아먹고 인민생활에 막대한 재해를 끼쳐 주머니의 가슴에 수천수백만원의 발과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우리는 일 손을 머슴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현대판종파이며 우리 당대렬에 우연히 기여는 불순분자들이 장성택일당이 정치적야심에 입에서 판공을 꾸었다는 그자체가 어리석기 그지없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들께는 그 누구도 모른다. 천하의 역적무리인 장성택일당을 제때에 적발속청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백배해지게 되었다.

우리 탄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만을 받들며 이 땅에서 사회주의강성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석탄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어나가겠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을 위한 집체실무강습 진행

【평양 12월 12일 발 조선중앙통신】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을 위한 집체실무강습이 10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집체실무강습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건설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을 받들어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집체실무강습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로작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가 강의하였다.

출연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시한을 보내주시어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을 완벽하게 밝혀주시고 그 구현을 위한 과업과 방법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감사하였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그 실현방도로 된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은 실천적정수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그 실현방도로 된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은 실천적정수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그 실현방도로 된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은 실천적정수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그 실현방도로 된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은 실천적정수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그 실현방도로 된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은 실천적정수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건설과학기술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건설감독통제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그 실현방도로 된다. 나라의 도시건설전망과 목표, 단계별건설계획, 세계건축발견추세와 최신설계기술, 선진적인 건설공법 등 건설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높여주는 특화강의들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는 당의 건축미학사상은 실천적정수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가장 과학적이고 인민적인 건축미학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구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취급되었다.

로작의 중심사상은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역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건설의 불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변영의 불꽃로 새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땅에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열려 위대한 대변영자들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이 회한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당의 웅대한 건설구상과 목표는 인민경제 생활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공업, 농업 등에서 생산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평양시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일떠세우고 도시, 군들을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특색있고 아름답게 꾸리는것이다.

또한 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며 보건, 체육, 문화시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건설하는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결합시키며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는것은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주체적건축사상의 근본원칙이다.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업은 건축설계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시공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것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케니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나이로비 케니아공화국 대통령 우후루 케니아라각하

나는 케니아인민의 뜻깊은 민족적명절인 독립 5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서 존재하는 친선적호전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2(2013)년 12월 9일 평양

변함없는 한목소리를

시련과 역경속에서 인민의 참모습은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법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일성민족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무한대의 정신력의 근원핵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가 전해진 날 저녁이었다. 어느 한 중앙기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이 나에게 굳이 새겨졌다. 최근시간이 지났지만 한자리에 모여 움직일 줄 모른 그들이었다. 장성택과 그 일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한자, 두자 총칭의 편지를 삼가 올린 그 기관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들이 올린 편지의 내용을 더듬어보라니 준엄했던 력사의 연막이 드러나며 울려 퍼져서 인민의 목소리들이 메아리쳐서 안겨왔다. 《수상님! 얼굴이 많이 축간 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인민생활이 어찌

세 폭의 붉은기 더욱 높이 추켜들고

각지 당 조직들에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명령을 힘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3대혁명명령은 기생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나가는 강력한 추동력이다.》 3월 5일청년학생동맹조직에서는 주체 97(200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로 마다하지 않았고 평안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음해에 3대혁명명령을 기생취운동에 대하여 주선 현지지도와 영웅관찰을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종업원들의 정성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시어 주체 98(2009)년 9월에 3대혁명명령을 기생취운동의 영예를 지니었다. 평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년간 선관장을 비롯한 10여개의 건설대상을 완공하고 선관공정의 정보화를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1100여동의 살림집을 특색있게 건설하고 1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면모를 일신시켜놓았다. 그리하여 주체 99(2010)년 9월에 평안에 또 다시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백만짜리 평안, 환경조성에서도 제일가는 표본평안이라는 크나큰 평가를 받아안았다. 평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한 전두를 힘있게 벌려 해마다 수천의 정방평안을 정상화하고 지난해 10월에 현대적인 유색극속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웠으며 올해인민경제계획도 10월말까지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락방에 군인수지일용품공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같은 헌신은 가장 위력한 선동

영진철길대 남강덕철길소대 선동영 모병철동무 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 면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것은 명백하였다. 방도는 오직 하나 누구든지 물질을 다룬다면 돌려야 하였다. 그것은 목숨을 내야 하는 위력한 일이었다. 정황은 문분초조를 다루고있었다. 바로 이때 흙마대를 지고 범람하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오병철동무였다. -동무들, 우리가 지켜선 두물개 철길우로 강성국가건설의 기관차가 달린다는것을 잊지 말자. 오병철동무의 뒤를 따라 소대원들이 내세우지 않았을 흙마대를 지고 계곡을 향해 달려갔다. 이리 해서 철길은 벌려 소대원들이 철길을 지켜보고 철차의 정상은 행을 보장할수 있었다. 이것은 오병철동무의 헌신적 노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오병철동무의 사업에서 다음

